

#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변화하는 한국 화교의 이주민 정체성: 서울 화교 사단 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

김기호\*\*

##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
| II. 한국 화교 조직의 개괄           | V.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
| III. ‘조국’으로서의 대만에 대한 인식 변화 | VI. 결론              |

##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한국 화교의 사단 조직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및 대만에 대한 화교 사회의 인식 변화와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한국 화교는 대만 정부의 교육 체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며 대만을 조국으로 인식해 왔다. 한중 수교 이후 화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중국 대륙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모색해 왔고, 특히 2000년대 대만의 민진당 집권 후 대만대표부와 잣은 갈등을 겪으며 중국대사관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편 한국 화교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신화교’와 자신들을 구별짓고, 고향인 산동 지역에 대한 귀속감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화교들은 여전히 대만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중립적인 위치를 통해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주민 집단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화교의 사례는 해외 화교에 대한 중국의 초국가적 민족주의 확대 노력이 각 화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며, 재중국화(resinicization)

\* 이 논문은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대폭 수정하고 2016년 후속 연구를 통해 새로운 논의들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 강사.

현상도 이주민 집단이 형성하는 '중국인'의 고유한 종족성 개념과 경합하고 충돌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 주제어: 화교, 중국대사관, 대만, 이주민, 산둥성

## I. 문제 제기

한때 화교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화교 사회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3세대의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남동, 연희동에 위치한 화교 중국 음식점은 맛집 명소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으며 몇몇 화교 요리사들은 '스타 셰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쇠락해 가던 인천 선린동의 화교 거주지역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고 새롭게 조성된 차이나타운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화권 관광객들까지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으로 영세한 화교의 보따리 무역은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급격히 증가한 중화권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화교들은 여행사,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2002년 화교들에게 영주권(F-5)이 부여되었고 2006년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정권도 주어지면서, 아직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지만 과거의 차별적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학계에서는 2014년 설립된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등을 중심으로 화교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유산에 대해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화교 학교에서 중국어를 교육시키려는 한국인 학부모들이 줄을 서는 한편, 중화권에서는 '한류'의 유행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화교들은 자못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으로, 대만에서는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차별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 왔던 화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변화에 대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화교 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수민족 집단으로서 화교 집단이 겪는 법적, 경제적 차별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배타성과 폐쇄성을 비판하는 시각이다(박은경 1986; 박경태 1999; 박상순 2001; 장수현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혼혈인 등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한국의 자문화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화교 집단을 차별적인 구조 속에 위치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피해자로 묘사함으로써 초국가적인 맥락에서 행위 주체들이 가지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화상네트워크의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화교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양필승·이정희 2004; 정성호 2004). 이 같은 관점은 ‘화교 상술’에 대한 대중서(미야자키 마사히로 2003; 오시로 다이 2014)와 함께 화상 경제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 보고서들에도 나타난다. 2005년 10월 한국화교경제인연합회에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면서 한때 화교 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동남아 화교에 비해 자본력이 떨어지는 한국 화교의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 후 한국화교경제인연합회도 유명무실해졌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는 앞서 서술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듯 보다 다층적인 관점에서 풍부한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 화교 집단 내부의 사회적 관계, 거주 공간, 교육 및 정체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이창호 2008; 정은주 2013a). 이러한 연구들은 화교 집단이 이주민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사회 조직 및 관계망, 교육 자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행위주체임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한편 화교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의 분석은 화교 사회 조직의 형성 과정과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지방의 화교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정희 2005; 이화승 2006; 김태만 2009; 조세현 2013; 송승석·이정희 2015)은 화교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온 이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또한 한국 화교가 지리적으로 정체된 집단이 아

나라 중국, 대만, 미국으로 재이주(re-migration)하면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졌다(김기호 2005; 장수현 2010; 이창호 2012a; 이창호 2012b; 김경학 2012; 안병일 2015). 이로써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는 화교들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으로의 귀향 이민(return-migration),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커뮤니티, 미국으로 재이주 이후의 종족 정체성까지 그 연구 영역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한중 국교 수립, 대만과 한국의 국교 단절, 중국의 경제적 성장, 대만의 민진당 집권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따른 화교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 시기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대만식 국민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한국 화교가 한중 수교 이후 자신들의 고향인 산둥성을 포함한 중국 본토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그들이 겪게 되는 이주민 정체성의 혼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질문일 것이다. 왕언메이(2013)의 최근 연구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처해 있는 한국 화교의 국가 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냉전 시기 동안 대만이 ‘반공’과 ‘대륙광복’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한국 화교의 ‘조국’ 의식을 강화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서, 한중 수교 이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창호(2011)는 인천 화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친중국’적인 화교 단체의 등장으로 인한 화교 사회의 갈등과 딜레마를 기술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인천에 국한되어 화교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화교 조직들의 역동적인 변화를 담아내지는 못 하고 있다. 실상 한국 화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화교 집거지가 있는 인천지역에 집중되어 지리적 공간에 누적된 종족적 특성을 밝히는 데 천착해 왔다. 반면 서울에는 가장 많은 수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으며 명동에 위치한 화교협회가 실질적으로 화교 사회를 대변하여 중국대사관 및 대만대표부와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화교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정은주(2013a; 2013b)의 연구가 서울지역 화교학교의 교육 문제 및 서울 화교 집거지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도다.

본 논문은 서울의 한성화교협회 및 중국교민협회 등 화교 사단 조직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화교들

이 직면하고 있는 이주민 정체성의 문제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화교 사회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 대만의 민진당 집권 이후 국적상 조국인 대만과의 갈등 요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대사관 및 중국 본토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화교들의 고향인 산둥지역에 대한 귀속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 집단에게 있어서 민족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상상의 공동체’(Anderson 1983)의 기반이 그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변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북미, 유럽, 동남아 등지의 화교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국가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투자 유치를 위해 화교, 화인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초국가적인 이주 현상이 민족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전복적인 성격을 띤다는 기준의 이론을 반박하며, 화교 자본이 국가 관료와 결탁하여 오히려 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측면을 부각했다(Ong & Nonini 1997; Ong 2002). 특히 중국의 대사관과 화교를 담당하는 교무(僑務) 부처의 활동을 통해 화교와 중국 본토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민족주의의 부흥을 경계하는 분석이 이루어졌다(Nyíri 2002; Thunø 2001).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이주한 ‘신이민(新移民)’의 경우는 인터넷, 위성방송 등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본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강한 애국심으로 인해 코스모폴리탄적인 성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Barabantseva 2005; Liu 2005; Chan 2006; Feng 2011). 이러한 기준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화교의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중국에서 새로 유입되는 이주민들과 구별 짓는 특수성을 보여주면서 민족국가의 틀로 규정지을 수 없는, ‘중국인’ 이주민의 고유한 종족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6개월간의 민족지 연구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주로 한성화교협회, 중국교민협회, 한성화교중고등학교, 한성화교소학교, 대만대표부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하였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는 중국 엔타이(烟臺)시에서 엔타이한화연의회(烟臺韓

華聯誼會)를 대상으로 귀향 이주한 한국 화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밖에 화교의 날(華僑節), 화교학교 행사,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화교들의 연말 모임 등에 참여하여 면접 조사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한성화교협회의 소식지인 『한화통신(韓華通信)』을 비롯하여 『한화천지(韓華天地)』, 『한화학보(韓華學報)』, 『미국제노한화잡지(美國齊魯韓華雜志)』 등 다양한 한국 화교 단체들의 잡지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외부자인 연구자가 면담 조사에서 들을 수 없는 화교 사회 내부의 논쟁과 해석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2016년의 후속 연구에서는 한성화교협회와 중국교민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간 중국 및 대만과의 관계 및 ‘신화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 II. 한국 화교 조직의 개괄

한국 화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기존 연구들(박은경 1986; 왕언메이 2013)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지와 연관이 되는 화교 단체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화교협회

화교들은 이주 초창기에 북방회관, 남방회관, 광동회관 등 동향회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고 점차 각 지역별로 중화상회(中華商會)를 조직했다. 1914년경에는 서울, 인천, 부산, 목포,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등에 중화상회가 형성되었고, 서울에는 각 지역의 중화상회를 총괄하는 중화상무총회(中華商務總會)가 설치되었다(한성화교협회 2002). 해방 후 주한 중화민국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한국 화교는 지역별 48개의 자치구로 조직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기존의 상회 조직들을 합쳐서 한국화교자치연합총회가 발족되었다(박은경 1986, 160). 전국적 조직이었던 한국화교자치연합총회가 인사 분쟁으로 인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자

중화민국 대사관은 한국화교단체연합판사처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이 또 한 1969년 해산되고 말았다(담건평 1985, 284). 한편 1961년에 화교 자치 구 조직은 각 지역의 ‘화교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편되었다. 각 지역의 화교협회는 중화민국 정부의 관리하에서 화교들의 출생, 결혼, 이혼, 사망과 관련된 호적 업무 및 출입국 서류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역소(役所)’ 기능을 수행한다(왕언메이 2013, 356-367). 실제로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성화교협회는 단순한 서류 처리뿐만 아니라 이혼 당사자 간의 중재, 화교들 간의 재산 분쟁 조정, 화교 빈곤층에 대한 구제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조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화교단체연합판사처의 해체 이후 화교 사회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조직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한성화교협회가 대만대표부와 화교 사회를 매개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활동해 왔다. 한성화교협회는 서울의 강북 전역 및 의정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영등포화교협회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남부 7개구를 관할하고 있다.<sup>1)</sup> 영등포화교협회가 한성화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 독립된 지역 협회로 기능하고 있다. 한성화교협회(이하 ‘화교협회’)는 명동에 위치한 중정(中正)도서관<sup>2)</sup>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화교 사회의 주요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오무장공사(吳武壯公祠)<sup>3)</sup> 제사(6월 25일), 쌍십절(10월 10일), 화교절(10월 21일), 춘·추계 야유회 등의 행사를 주관하며 한국 사회에서 화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교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화교협회의 임원들은 대만대표부 및 중국대사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중국 지방 정부의 화교 업무(僑務) 담당 공무원들이 방한할 때 접대를 하는 등 화교 사회를 대표하여 대만 및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 
- 1) 그 밖에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각 지역 협회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화교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의 소규모 화교협회들은 강원도, 충청도 등 광역 단위로 연합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추세다.
  - 2) 중정도서관은 1975년 서거한 장제스(蔣介石) 전 대만 총통을 기념하여 건립되었으며, ‘중정(中正)’은 그의 본명이다.
  - 3) 오무장공사는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나라 제독 오장경(吳長慶)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으로 현재 연희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 뒤편 언덕에 위치해 있다.

화교협회에서 발간하는 협회보인 『한화통신(韓華通信)』은 협회 행사 및 임원의 활동 사항을 알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논평을 게재하여 화교 사회의 언론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 2. 대만 국민당 조직

대만 정치는 한때 ‘당이 정치를 영도한다(黨領政)’고 할 정도로 국민당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정부 산하에 화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국민당은 주요 17개 국가에 교민복무위원회(僑民服務委員會)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화교들을 관리해 왔다. 교민복무위원회는 사실상 국민당 지부로 기능했는데, 한국에서 외국 정당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당 본부에서 지령을 보낼 때도 개인 서신인 것처럼 처리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화교 사회의 지도적 인물들이 대부분 국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화교협회를 비롯한 화교 사단 조직들이 밀접한 협조 관계에 있었다(담건평 1985, 287). 예컨대 한화청년반공구국총회와 중화부녀반공연합회의 한국분회는 각각 국민당 산하의 청년회와 부녀회에 연결된 하부 조직으로서 반공 성향의 정치 집회를 주최하여 화교들의 반공 이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대만 정부는 국민당 조직 외에도 해외 화교의 국내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화교입법위원회와 감찰위원회를 선출하여 화교들의 상징적인 참정권을 보장했다. 1980년대에는 한국 화교 출신의 입법 위원도 선출되었으나 이후 한국 화교의 인구 감소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또한 대만 대사관의 교무위원회에도 화교 고문 20여 명, 자문위원, 지도위원, 청년위원 등 40~50개의 직책을 마련하여 화교들을 정치적으로 포섭하고자 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만대사관이 철수하면서 화교 사회 내의 국민당 조직은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서 화교 단체의 반공 집회를 일체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화교들 역시 ‘반공’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국민당 산하 조직들의 입지는 좁아져 갔다. 2004년 연구자가 명동 중국대사관 옆

에 위치한 교민복무위원회를 방문했을 당시, 건물 안에 장제스(蔣介石), 장정궈(蔣經國) 전 총통, 렌잔(連戰) 당시 국민당 총재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2000년 민진당 집권 이후 국민당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어 명목상의 단체로 전락해 있었다. 한화청년반공구국총회와 중화부녀반공연합회의 한국분회는 각각 한성화교청년회와 한화부녀연합총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종의 친목 조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였고 조직 규모도 크게 축소되었다. 2007년에는 민진당 정부가 국민당이 점유한 해외 국유재산을 정리하면서 명동에 위치한 국민당 교민복무위원회 사무실을 철수시키자 화교 내의 국민당 조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화교는 여전히 국민당의 정통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화교협회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에 대항하여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한화통신(韓華通信)』 2016/01/04).

### 3. 중국교민협회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교협회는 전통적으로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한중 수교 이후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대사관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화교 사회 내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 및 대사관과의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02년 화교협회의 회장 선거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Y후보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향하는 M후보가 대결을 벌여 Y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M후보 측은 중국교민협회(이하 ‘교민협회’)를 창립하고 D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그 산하에 한화중국화평통일촉진연합총회(韓華中國和平統一促進聯合總會)를 발족시켰다.<sup>4)</sup> 중국화평통일촉진회는 1988년 중국 북경에서 결성되었으며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비영리 사회 조직으로서 전 세계 16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sup>5)</sup> 2003년 대만에서 천수이볜(陳水扁)

4) M후보 측의 배후에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한방 주치의이자 한중 수교의 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H씨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H씨는 교민협회의 창립 때부터 2016년 현재까지 명예회장직을 유지해 오고 있다.

총통이 대만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한화중국화평통 일촉진연합총회는 중국대사관과 합세하여 신라호텔에서 대만의 독립 주장을 규탄하는 모임을 가져 중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교민협회는 창립 단계에서부터 중국대사관 측과 밀접한 교감이 있었다. 교민협회의 명예회장인 H씨는 2004년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대사관 측에서 먼저 자신을 찾아와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화교 단체의 조직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중 수교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중국대사관과 화교 사이의 창구가 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던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교민협회는 중국의 고위 인사가 방한할 때 화교들로 구성된 환영단을 공항에 보내고 자비를 들여 환영 접대를 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국경절(10월 1일), 춘절(春節) 행사 등에 대표단을 보내 참석한다. 중국대사관은 교민협회가 화교들의 중국 비자 업무를 맡아 그 수수료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교민협회에서 응원단을 조직하여 중국 대표팀을 응원하기도 했다.

교민협회는 2008년 들어 ‘중국재한교민협회(中國在韓僑民協會)’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한 중국인동향회연합총회와 통합되어 중국 국적을 가진 재한 중국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확대되었다. 현재 협회의 명예회장은 여전히 H씨가 맡고 있지만 전체 구성원은 한중 수교 이후 이주한 한족 및 중국동포 등 ‘신화교(新華僑)’가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 ‘구화교(舊華僑)’는 소수에 불과하다.<sup>6)</sup> 현재 협회의 부회장은 한족 인사가, 이사진은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재한중국동포총연합회, 재한중국인상인연합회 등 중국동포 단체의 회장들이 차지하고 있다.<sup>7)</sup> 2015년

5) 2002년 12월 인천에서도 40여 명의 화교를 주축으로 인천중국화평통일촉진회가 발족되어 인천 화교 사회 내에 ‘친중국’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창립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이 지지부진해졌다고 한다(이창호 2011, 61-69).

6)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주해 온 중국인은 ‘신화교’, 그 이전에 한국에 거주해 온 중국인은 ‘구화교’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은 중국 동포 63만여 명을 포함하여 100만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출입국 2016). 한편 구화교의 인구는 통상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화교와 신화교의 비교에 대한 내용은 김태만(2009, 26-36) 및 리(Rhee 2009, 111-126)의 논의를 참조.

7) 재한 중국동포 단체들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춘호(2014)의 논

에는 교민협회에서 ‘한국화성(華星)예술단’을 조직하여 중국 국무원이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문화중국 사해동춘(文化中國 四海同春) 예술단’의 교민 위로 공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 III. ‘조국’으로서의 대만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화교들은 춘원(孫文)의 신해(辛亥) 혁명과 중화민국 건국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고 춘원은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라고 일컬으며 그 공로를 인정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에는 학교 출신의 입법위원, 감찰위원을 선출하고 화교들의 경제, 교육, 복지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되었다. 대만에 성립된 국민당 정부도 모든 해외 화교를 중화민국 국민으로 포용하면서 유엔 탈퇴(1971) 등으로 약화된 국제적 환경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펼쳤다(정영록 2002, 59). 1950년대부터는 대만의 반공체제가 강화되었고 한국의 화교 사회에도 반공과 ‘대륙수복(大陸收復)’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고착화되었다.

남북한의 분단 이후 남한의 화교들은 90% 이상이 대륙의 산둥성 출신이었지만 대만(당시 중화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화교 학교를 통해 대만 정부의 국민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화교학교에서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애국과 삼민주의(三民主義) 이념이 강조되었고, 『한화일보』, 『한중일보』 등 화교신문을 통해 성인들의 반공의식도 강화되었다(왕언메이 2013, 461-485). 앞서 언급했듯이 한화청년반공구국총회와 중화부녀반공연합회 등 반공 성향의 화교 단체들은 화교학교에서 반공 성향의 정치 집회를 조직하여 ‘공산당 타도’, ‘중화민국 만세’, ‘삼민주의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sup>8)</sup> 화교 학생들은 방학

---

의 참조.

8) 대만의 반공구국청년회는 장정궈(蔣經國) 총통 시절 ‘대륙수복’의 명분하에 청년들의 반공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18-40세의 남성이 가입 대상이었다. 중화부녀반공연합회는 국민당 부녀회의 하부 조직이며, 부녀회는 원래 여성의 문맹 퇴치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부녀절 행사를 주관하고 화교 경조사 때 자원봉사

때 ‘구국단(救國團)’이라는 고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서 국토종단, 학생캠프, 강연회 등의 행사에 참여했는데, 제반 비용은 국민당에서 지원해 주었으며 주로 중국 대륙과의 군사 접경 지역인 진먼(金門)·마주(馬祖)를 방문하여 애국심과 반공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이 강했다. 중화민국의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10월 10일)과 화교절(10월 21일)이 있는 10월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귀국단(歸國團)’이 조직되어 2~3천여 명의 화교들이 대만을 방문하여 환영 행사, 기업 탐방, 관광 등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의 화교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대만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분단 상황의 남한 화교들을 포섭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의 폐쇄적인 국적법 및 화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맞물리면서 대만 정부에 대한 한국 화교의 의존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전쟁의 동란을 직접 경험한 화교 1세대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화교 용사들에 대한 추모 행사는 한국의 반공주의와 화교 사회를 연대해 주는 매개가 되었다. 1975년에는 한국 정부의 총력안보 운동에 호응하기 위해 화교 학교에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인형을 불태우는 등 학생을 포함한 만여 명의 화교가 참가한 ‘멸공궐기대회’가 열렸고, 1980년대에도 한국과 대만의 ‘반공연합’을 위한 화교 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었다(왕언메이 2013, 528~533). 국민당 교민복무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도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중국 대륙을 출입했던 화교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방첩 활동을 위해 안기부의 정보 수집에 대해 화교 단체들의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1980년대의 몇몇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한국 화교들의 강한 반공의식을 엿볼 수 있다. 1983년 중국(당시 중공)의 민항기가 한국에 납치되어 불시착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만은 6명의 중공인 납치범들을 ‘반공의사(反共義士)’로 규정하여 대만 송환을 요청했고 화교들도 한국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며 이들의 대만 송환을 요구했다.<sup>9)</sup> 1989년 북경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

를 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9) 결국 6명의 납치범들은 대만으로 송환되어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그중 3명은 유괴,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2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한 화교는 이 사건을 희고하면서 대만의 정치적인 공작에 화교들이 이용당한 것이라고

화교들은 명동 거리에서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중국 공산당의 계엄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1992년 대만과의 국교 단절은 대만에 대한 애국심과 반공의식으로 결집되었던 화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92년 8월 24일 명동의 주한 중화민국대사관에는 2천여 명의 화교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의 하기식을 지켜봤다. 당시 40대 중반의 나이로 하기식에 참가했던 한 화교는 그 사건을 “하루아침에 내 나라 국기가 없어졌던, 한국에서 화교로 살면서 가장 비통했던 순간”(저자 인터뷰 2004/11/03)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을 인솔하여 참여했던 한성학교중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울분을 달래기 위해 대만 ‘구국단’ 활동 때 불렀던 <매화>, <중화민국의 노래> 등 애국 가요를 다 같이 불렀다고 회고했다. 한국과 대만의 국교 단절과 함께 이루어진 한중 수교는 화교 사회에 일시적인 혼란을 가져왔다. 대사관 부지를 제외한 화교 학교와 협회 건물은 화교들이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사관에 인접한 한성학교소학교와 국민당 당사에는 청천백일기의 게양이 금지되었다. 이제 화교 학교에서 대만 교과서가 아닌 중국 교과서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감도 잠시 있었지만 화교 학교의 자율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다(남도경 2013, 202-204).

한편 1992년 국교 단절 이후 대만의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는 한국 화교와 대만의 심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1990년 본성인<sup>10)</sup> 출신인 리덩후이(李登輝)가 대만 총통에 취임하면서 ‘대륙수복’을 전제로 중국 전역에 대표를 두었던 국민대표회의 및 입법위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입법 위원의 80% 이상에 본성인이 선출되었다.<sup>11)</sup> 또한 국민대회, 입법위원, 감찰위원의 화교 정원이 감소되어 국내 정치에 대한 화교의 참정권이 약화되었고 화교 정책도 대륙 출신보다 본성인 출신의 화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왕언메이 2013, 608-614). 외성인인 한국 화교의 입장

---

결론지었다.

10) 1945년 이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외성인(外省人)’, 그 이전에 대만에 거주하고 있던 한족 및 토착민은 ‘본성인(本省人)’ 혹은 ‘내성인(內省人)’으로 구분되며, 본성인이 대만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1) 리덩후이 이후 대만의 국가정체성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이원봉·임규섭(2009)의 논의 참조.

에서 볼 때 대만의 민주화로 인한 본성인 중심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약진을 경계하며 화교들은 국민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냈다. 200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한국 화교는 국민당 렌잔(連戰) 후보를 지지했지만, 결국 민진당 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당선되어 화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당시 한노년의 화교는 “대만이 독립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대만 침공에 참전할 것”(저자 인터뷰 2004/11/03)이라며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2004년 대만 총통 재선 때는 300여 명의 화교들이 국민당 렌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대만으로 건너가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sup>12)</sup>

민진당 집권 이후 화교들은 대만의 화교 지원 정책이 약화되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한성화교중학교는 대만 정부로부터 매년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2000년부터는 학교 측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대만대표부에서 검토 후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학교장은 “대만 정부에서 국민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돈을 학교가 구걸해서 받아야 하는가”(화교중고등학교 손수의 교장과의 인터뷰 2005/01/14)라고 반발하며 4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2004년에 들어서야 지원금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불만은 역사, 지리, 사회 등의 교과목에서 점차 대륙 관련 내용들이 축소되고 ‘인식대만(認識臺灣)’이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어 대만(섬)의 지리와 역사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화교 학부모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학교 측은 한동안 교과서 개정 이전의 사회과 교과서를 복사해서 사용했다(화교중고등학교 담도경 교사와의 인터뷰 2004/11/06). 이 같은 화교들의 불만에 대해 당시 대만대표부의 양조림 교무(僑務) 담당 영사는 “화교들에 대한 대만 정부의 정책은 이전에는 인심 위주의 인치(人治)를 했다면 지금은 법규에 따르는 법치(法治)를 한다는 점이다.”라며

12) 2004년 3월 20일에 치러진 대만 총통 재선에는 전 세계적으로 17만여 명의 화교가 귀국하여 선거에 참여했는데, 그중 약 75%가 국민당 후보를, 25%가 민진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진당 후보를 지지하는 화교들은 대부분 과거 국민당 집권 시기 정부의 억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본성인 화교이고, 대륙 출신 화교는 대부분 대만 독립 반대와 국민당 지지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KBS 월드리포트』 2004/03/23).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인정했다(저자 인터뷰 2005/01/25).

이미 언급한 대로 교민복무위원회를 비롯한 국민당 화교 조직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차단되면서 화교들은 자신들이 이제 대만의 ‘3등 국민’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sup>13)</sup> 대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구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본성인 중심의 정책들이 추진되자 화교들은 이를 외성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다. 대만어(민난 방언)가 보편화되고 있는 대만 사회에서 산둥 방언을 쓰는 한국 화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또한 점차 심해졌다. 무역업에 종사하며 대만을 자주 왕래하는 한 화교 사업가는 “대만에서 외성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져서 이제는 화교들이 대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001년 대만 총선에서는 민진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外省猪(외성인 출신 돼지)’는 대만을 떠나라’는 구호까지 나왔다.”며 대만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대만 대학에 진학하는 화교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매년 쌍십절마다 대만을 방문하던 화교 ‘귀국단’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지고 말았다. 한때 ‘유일한 조국’으로 느껴졌던 대만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화교들에게 ‘여권상의 조국’으로 전락한 반면, 한중 경제 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화교들의 잊혀졌던 고향인 중국 대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 IV.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중 수교 이전까지 대만의 반공사상에 영향을 받은 화교들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중국 사회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다고 한다. 한중 수교 직후에는 화교들 사이에 화교 학교에서 중국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중국 교과서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때 돌면서 중국에

---

13) 화교들은 대만 거주 본성인이 ‘1등 국민’, 해외에 거주하는 본성인 화교가 ‘2등 국민’, 그리고 중국 본토 출신(외성인)인 화교인 자신들이 ‘3등 국민’이라고 표현했다.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1990년에는 인천과 웨이하이(威海) 사이에 처음으로 정기여객선이 운항하면서 화교들은 40여 년 만에 고향인 산둥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친척 방문을 위해 산동성을 찾은 화교들에게 군복을 입고 무장한 항만 경비들은 위협적으로 보였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고향의 모습은 실망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당시 고향을 방문했던 화교들은 가난한 농민인 친척들에게 돈과 선물을 주고 와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불균형적인 관계로 인해 친척들과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산동 방언을 사용하는 화교들에게 산동인들과의 의사소통은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조국이라 생각했던 대만에서 산동 방언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산동에서의 언어적 동질감은 화교들에게 각별한 친근감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친척 방문을 위해 왕래하던 화교들은 산동지역에서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며 소규모 보따리 무역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을 통한 화교들의 출입국 인원도 1991년 2천여 명에서 시작하여 1990년 대 후반에는 2~3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김기호 2005, 48). 화교들은 18시간 정도 소요되는 여객선을 타고 인천과 웨이하이를 왕복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의류와 전자제품을 가져가 팔고 중국에서 참깨, 고춧가루, 한약제 등 농산물을 수입했다.<sup>14)</sup> 한때는 웨이하이에서 한국 의류가 날개 돌친 듯이 팔려서 몇몇 호텔들에서는 화교 보따리상들이 대부분의 방을 차지하고 손님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산동지역에 쉽게 적응한 화교들이 중국 세관과의 ‘관시(關係)’를 형성하고 현지의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화교 보따리상은 2000년대 들어 중국 농산품 유입에 대한 한국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중국동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조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한국 화교가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고 언어적·문화적 동질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15)</sup>

14) 한국의 중국음식점에서 유독 엔타이 고량주가 많이 판매되는 것도 화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엔타이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이다.

15) 중국 및 대만의 국경을 넘나드는 한국 화교의 보따리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기호(2004, 59~66)의 논의 참조.

한편 한중 수교 이후 중국대사관과의 접촉을 회피해 왔던 한국 화교 사회에도 2000년대 중반 들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앞서 소개했듯이 중국대사관 측은 2002년 교민협회의 설립을 지원하여 화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고, 이는 화교 사회 내의 첨예한 이념 대립을 야기했다. 화교협회는 교민협회를 ‘공산당 관할 교민 단체’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이 화교협회의 임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회의 조직통칙을 개정하는 한편, 대만대표부에 그들의 대만 비자 만기 연장 및 각종 신분증 발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여 교민협회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교민협회 측은 “대만대표부가 여권으로 화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한화천지(韓華天地)』 2004/01)고 비판하며 국제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민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대만 국민’이 아닌 ‘중국 교민’으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대만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민협회의 한 임원은 “중국이 과거에는 공산주의 체제였지만 개혁개방 이후 화교를 우대해 주고 중국과의 교류도 늘어나기 때문에 화교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만이 유일한 조국으로 여겨졌지만, 대만의 정치적 정통성이나 반공의식은 과거 집권자의 야심에 의한 것이었고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인터뷰 2005/01/06)며 자신의 교민협회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교민협회 창립 이듬해부터 화교협회 역시 중국대사관에 단체 등록을 하고 대사관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협회 회장이었던 양덕반 씨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산둥성의 교판(僑辦) 관리들과 교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중국대사관과의 가교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한다. 양 전회장은 “중국대사관이 처음에는 우리를 친대만파로 오해하고 교민협회를 지원했던 것 같다. 하지만 화교협회는 120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교민협회와 비교될 수가 없다. 중국대사관에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도 이념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실용적인 협조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 국경질과 대만 쌍십질 행사에 모두 참가하며 중국대사관과 대만대표부 양쪽과 왕래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저자 인터뷰 2004/11/22)며

중국대사관 등록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만대표부는 당혹감을 느끼며 화교협회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지만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대만의 민진당 집권 이후 화교 지원 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대만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화교들이 중국대사관과 접촉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화교협회에 전달했지만, 대만대표부가 교민 단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중국대사관과 너무 가까이 접촉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만 하고 있다.”(대만대표부 영사와의 인터뷰 2005/01/25)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이후 해외 이민을 배신적 행위로 배척하면서 귀국 화교나 화교 가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했다. 하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화교들의 자본 투자가 절실해진 중국은 화교에 대한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추진했고, 출입국과 거주, 경제 활동 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귀국 화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僑聯) 산하에 8,000여 개의 조직이 형성될 정도로 중국 정부와 해외 화교의 관계가 발전했으며, 전국인민대회에 화교위원회가 신설되어 화교 대표들이 선출되었고 화교 업무를 전담하는 교관(僑辦) 부서가 중앙 정부와 각 지방 정부에 설치되었다(Nyíri 2002). 특히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화교 단체들을 포용하면서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만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에 화교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화교 포섭 정책에 대해 대만의 교무위원회는 갖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적·물적 공세에 밀려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영록 2002, 65–66).

이와 같이 한국에서 화교와의 관계 유지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첨예하고 민감한 외교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교 사회 내에서도 친대만파와 친중파 사이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양필승·이정희 2004, 98). 하지만 화교 사회의 내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친대만파와 친중파의 이분법적 시각은 적절한 분석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진당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한 화교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멀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교는 여전히 대만 국적을 유

지하고 있으며 화교 학교에서도 대만식 교육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민 협회가 친중국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화교 사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지는 못했고, 대다수의 화교들은 화교협회가 지향하는 중도적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그들은 쑈원의 삼민주의를 계승한 국민당의 정통성에 기반하여 중국과 대만, 어느 한쪽의 국가체제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화인(華人)’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화교들의 인식은 화교 출신 대학 교수인 허경인(許庚寅 2004, 99)이 『한화 학보(韓華學報)』에 기고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1992년 한국과 대륙의 건교(建交)는 한국화교 사회의 조국 인식에 있어서 모순과 혼란을 가져왔다. 화교는 언어와 문화기질에 있어서 이국(異國)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과 마음속에서 자신의 민족적 특성을 떠날 수 없으며, 화교에게 정치체제, 의식형태, 국적 등 민족문화의 외적인 속성들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화교들이 양안(兩岸)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중국대사관과 대만대표부 행사에 참가한다. 화교 사회는 화교들의 族國認同(민족국가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漢賊不兩立(국민당과 공산당이 양립할 수 없다)’는 반공사상을 벗어났으며, ‘順序漸進(순차적인 진전)’의 큰 방향 속에서 ‘以和爲貴(평화를 귀하게 여김)’과 ‘雙贏全勝(양측이 모두 이김)’의 지혜를 체득하고 있다.”

## V.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 1. 대만대표부와의 대립과 갈등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만대표부와 화교 사회의 관계는 몇몇 사건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2005년 대만대표부는 명동에 위치한 한성화교소학교를 연남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로 이전, 통합하고 그 부지에 10층 높이의 상가 건물을 건축하여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화교소학교, 화교중고등학교 및 화교협회가

사용 중인 명동 중정도서관 건물 등의 소유 명의를 ‘중화민국’에서 ‘주한 대만대표부’로 변경하는 한편, 수표동 일대의 화교협회 관리 토지에 대해 서도 서울시에 환지(換地)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대표부가 화교 단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자 화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화교들의 주장에 따르면, 화교 학교 및 협회 건물의 부지는 청나라가 매입하여 화교들이 줄곧 사용해 왔으며 학교와 협회 건물 건립을 위해 화교들이 모금해 일궈낸 ‘화교 조상들의 유산(祖產)’이기 때문에 대만대표부가 화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에는 앞서 설명한 교민협회의 친중국 성향 인사들이 2003년부터 화교학교의 이사진에 포진하자 이에 불만을 느낀 대만대표부가 별도의 이사진을 구성하려다가 화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 대만대표부 L대표가 민진당 소속으로 천수이볜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화교들은 대만대표부의 움직임에 대해 더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대만대표부는 한성화교중학교 이사회가 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격분한 화교들은 2006년 2월 대만대표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화교들은 당시 ‘韓華蓮心保護僑產(한국 화교는 마음을 모아 화교 재산을 보호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화교협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교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조상의 재산을 즉각 반환하라”, “공정터우밍 바오후차오찬(公正透明 保護僑產)” 등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구호를 외치며 대만대표부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응해 대만대표부 L대표는 직원들을 동원해 ‘臺灣是民主主義國家(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다)’, ‘謊言者抹殺眞實(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살시킨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 중인 화교들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여전히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화교들이 자국의 대표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시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양측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결국 대만 정부가 2006년 6월 L대표를 교체하고 화교들의 재산권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대만대표부와 화교 사회의 거리는 더욱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화교 사회는 2005-2006년 한성화교중고등학교의 연례행사 중

쌍십절, 장제스 탄신기념일, 춘원 탄신 및 서거 기념일 등 화교협회가 주관하고 대만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왔던 기념식들은 축소하거나 행사 자체를 취소하여 대만대표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정은주 2013a, 161). 화교협회의 회의실에는 원래 춘원과 장제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춘원의 사진만 걸려 있다.

2013년에는 화교들의 대만 여권에 대한 비자 차별의 문제가 불거졌다. 대만 정부는 2009년 영국, 2010년 캐나다, 2011년 EU 및 호주, 그리고 2012년 미국 등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는데, 대부분 대만 호적이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화교들은 이러한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 중 영국, 캐나다 등은 주한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화교들은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필리핀 등 제3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가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대륙에서도 무호적(無戶籍) 대만 여권을 가진 한국 화교는 2년 만기의 여행증을 발급 받게 되어 있어서, 5년 만기의 ‘대만 동포증(同胞證)’에 주어지는 금융, 부동산 거래,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교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여권을 ‘깡통 여권’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반발했다. 화교들은 2014년 6월 전국적인 화교협회의 조직을 통해 대만대표부 앞에서 약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권익 평등, 적극 행취(維護權益, 爭取平等)’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함께, 화교 여권을 확대한 피켓을 들고 나와 차별적인 여권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sup>16)</sup> ‘중국 인권 요구하면서 왜 화교의 인권을 무시하나!’라는 중국을 의식한 듯한 피켓도 등장했다. 화교 신문에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이 대만이 어려울 때 지지를 보내준 화교들에게 ‘이등(二等) 국민’의 낙인을 찍고 있다며 대만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들이 연달아 게재되었다. 실상 대만 외교부는 비자 협상에서 상대국에게 무호적 대만 여권 소지자들까지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상대 국가들에서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蘋果日報』 2010/12/16).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혜택의 불평등에 대한 시위를 통해 화교들

16) 당시 항의 시위를 주도했던 화교협회의 L회장은 2015년 한국 화교로는 최초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위원에 선출되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은 이제까지 대만 정부에 누적된 불만과 소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 사건 이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화교들도 많이 늘어 났다고 한다.<sup>17)</sup>

## 2. 중국대사관과의 교류 확대 및 신화교와의 차별성

한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화교협회는 중국대사관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보였고 중국과의 접촉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2004년 10월 1일에 중국 국경절에 맞춰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과 지방의 화교협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제·문화 시찰단이 조직되어 북경을 방문하였는데, 막상 국경절 새벽의 국기 게양식에는 다들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불참했다고 한다. 2004년 5월에는 화교협회의 신임 회장단이 중국대사관을 처음 방문하였고, 2006년부터는 중국대사관의 총영사나 교무(僑務) 담당 영사의 이취임에 맞춰 협회에서 환송과 환영 행사를 주최하기 시작했다. 화교협회의 소식지를 보면 처음에는 이러한 행사의 주최를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상호로 표기했다가 2009년에 들어서는 협회가 행사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2007년부터는 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춘절(春節) 행사와 국경절 행사에 화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8월 1일 중국 건군절(建軍節)에도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화교협회에서 중국외교부 구빈위원회(扶貧委員會)에 연말에 구빈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2008년 쓰촨 대지진 때도 중국대사관에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화교협회의 행사 중에는 전국적으로 300-500여 명의 화교들이 참가하는 춘계·추계 야유회가 큰 규모인데, 최근에는 춘계 야유회에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추계 야유회에는 대만대표부 직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화교협회 행사에서 대만대표부와의 관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중국대사관 및 대만대표부 양측과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7) 대만 내정부(内政府)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대만 국적을 포기한 759명 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33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한화통신(韓華通信)』 2016/05 /02).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2012년 한성화교중고등학교에서 중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중국대륙반’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중국대사관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교학교에 대한 교과서 제공을 제안해 왔지만 학교 측에서는 교육 내용에 중국의 사상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다. 학교 이사회에는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민협회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들조차도 교육에 대해서는 긍진적인 변화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 동포를 비롯한 중국인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륙 교과서 교육반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났고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2012년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대륙반을 개설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개설되었고, 각 학년에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했으며, 또한 중국 본토로부터 9명의 교사를 파견했는데 교사들의 급여는 중국 정부에서 지급하고 학교 측은 기숙사와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대륙반에서도 정치, 사회, 윤리 등 학생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목들은 대만 교과서를 사용하고, 수학과 과학 등 이과 과목들에만 대륙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륙반 학생들은 번체자와 간체자를 혼용해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성화교중고등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가 대륙에서 온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또한 화교 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생수 부족에 대한 학교 측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원칙을 견지해 왔던 화교 학교가 중국 정부로부터 교과서와 교사를 지원받기로 결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만과의 갈등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화교와 중국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한중 간의 경제 교류가 증가하면서 화교 사회도 중국대사관을 통해 더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화교

---

18) 실제로 영등포 소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 동포 자녀들 중 다수가 한성중고등학교 대륙반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화교중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 중 30% 이상을 신학교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부근의 건축업자와 수도시설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중국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화교들은 중국 및 대만 양쪽과 둘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 교민으로 포섭되거나 대륙 출신 신화교와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친중국 성향의 화교들이 설립한 교민협회가 2008년 한족 및 중국 동포 등 신화교를 포함하는 단체로 확대되었지만 구화교의 참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금은 신화교 중심의 교민 단체로 자리 잡았다. 애당초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대립했던 교민단체와 화교협회가 이제는 신화교와 구화교의 갈등 구도로 재편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대사관의 총영사나 교민업무 담당 영사의 이취임을 위한 환송 및 환영 모임도 교민협회와 화교협회가 별도로 주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민협회에 관여하고 있는 한 구화교 인사는 “구화교는 신화교가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신화교는 구화교가 산동 사투리를 쓰고 중국어 실력도 떨어진다고 무시한다.”(교민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06/24)며 두 집단 간의 갈등 관계를 설명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기존에 교민협회에 참여했던 구화교 중 상당수는 활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신화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구화교의 이 같은 태도는 자신들의 고향인 산동성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화교의 경우 광동, 푸젠, 저장 등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지역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남북 분단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대만에 의존해야 했던 한국 화교들에게 대륙의 고향과의 관계 및 귀속감은 유동적이고 도구적(instrumentalist)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화교들은 산동지역의 고향을 방문하여 친척들을 만나기도 했고 지역적 기반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노년을 보내기 위해 귀화 이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인들과의 문화·사상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 친척들과의 경제적 격차, 현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국 화교와 산동지역의 관계는 그리 밀접하게 발전하지 못했다(김기호 2005; 장수현 2010; 이창호 2012a). 이는 1970년대 화교에 대한 차별 정책을 피해 미국으로 재이민(re-migration)을 간 한국

화교들이 ‘제노한화(齊魯韓華, Shantung Hanhwa)<sup>19)</sup>’라는 명칭의 조직을 만들어 산동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국 산동에서 이주해 온 신화교 이주민들과 통합하는 양상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에서 한국 화교는 주로 코리아타운이 있는 LA,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한국인 교민을 상대로 중국음식점을 하면서 정착했으며, 현재 미국에 약 2만여 명의 한국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안병일 2015, 4). 1982년 설립된 샌프란시스코의 제노회관(齊魯會館, Shandong Association)은 중국 산동 출신으로 미국 유학 뒤에 정착한 기업인이나 사업가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들은 산동지역의 대학 및 중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산동 출신인 공자의 탄신일(음력 8 월 28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말에 ‘공자대전(公子大典)’이라는 기념 제례 의식을 행하거나 ‘공자배(Confucius Cup) 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동지역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LA지역의 한국 화교는 ‘한화연의회(韓華聯誼會)’라는 단체를 통해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미국제노한화잡지(美國齊魯韓華雜誌)』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동정이나 한국 화교 사회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sup>20)</sup>

미국의 한국 화교 사례에 비추어 보면 화교협회를 비롯한 한국 화교 단체가 산동지역과의 관계 및 고향에 대한 귀속감은 유동적이고 도구주의적(instrumentalist)으로 나타난다. 화교협회 차원에서 산동성의 교무(僑務) 담당 공무원들과 교류가 있으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고, 화교협회에서 매년 중국대사관에 구빈기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산동지역을 위한 구빈사업이나 장학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모님 본적이 산동으로 되어 있을 뿐 우리 세대는 산동에 대해 그다지 애착이 강하지 않다.”(화교협회 직원과의 인터뷰 2016/07/04)라든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는 사

19) ‘제노(齊魯)’라는 표현은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현재의 산동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산동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인다.

20) 안병일(2015)은 미국 미시간지역의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에서 화교들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재중국화(resinicization)의 성향이 약하고 오히려 미국 사회에 대한 동화 의지가 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 화교가 처해 있는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중국인 정체성에 대한 상이한 지향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상이나 습성이 잘 맞지 않는다.”(교민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06/24)는 식으로 중국 본토나 산둥지역과의 거리감이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화교협회의 한 임원은 “신화교는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지만 우리 ‘기우차오(舊僑)<sup>21)</sup>’는 느긋하고 여유 있는 편이다. 한국 사람으로 치면 강남 사람들처럼 보수적인 면이 있다.”(화교협회 임원과의 인터뷰 2016/07/12)라며 신화교와의 경제적, 계층적인 구분이 있음을 드러낸다. 구화교는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법적·사회적 지위를 얻어낸 것에 비해, 재외동포 자격이 있는 조선족이나 자본력 있는 한족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자마자 자신들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만여 명 규모의 구화교가 수적으로 압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함께, 주로 단순노무 근로자인 신화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짓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화교 사회 내에서도 구화교 스스로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신화교와 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김태만 2009, 196), 향후 구화교와 신화교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I. 결론

2004년 석사논문 조사를 실시할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화교들이 점차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식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화교들은 아직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교협회와 화교 학교들은 여전히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그간 대만대표부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대만 정부는 여전히 화교들이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불만

---

21) ‘기우’는 ‘지우(舊)’의 산동 방언 발음이다. 화교에 의해 도입된 중국음식인 ‘깐풍기’나 ‘라조기’도 닭고기를 뜯하는 중국어 ‘지(鷄)’의 산동 방언인 ‘기’로 표기되어 있다.

을 제기하는 대상이지, 아예 무시하고 외면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한편 화교협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만대표부 및 중국대사관 양측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대사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이제 양측 사이에서 균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4년 친중 성향의 화교 단체로 설립되었던 교민협회는 2008년 중국재한교민협회로 재편되면서 중국동포를 포함한 신화교 위주의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화교 사회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이주민 집단으로서 정치·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향인 산둥지역에 대한 귀속의식은 크게 강화하지 않았고 신화교 집단과도 자신들을 구별지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화교 사회의 변화를 ‘친대만’과 ‘친중국’ 사이의 분열로 보는 시각은 그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진당 집권 이후 화교 사회 내에 ‘친대만’의 입장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됐지만, 삼민주의에 근거한 국민당의 역사적 정통성은 아직도 화교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화교협회가 중국대사관과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것이 화교 사회가 중국의 정치 체제를 지지한다든지 애국적인 ‘교민’으로 포섭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화교들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화교협회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화교 협회의 한 임원의 표현에 따르면 ‘별거 중인 아버지(중국)와 어머니(대만)’ 둘 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대만 사이를 저울질하며 실리만을 취하는 이주민 집단의 ‘이중적인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도 온당치 않을 것이다. 한국 화교는 냉전과 국가민족주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포섭과 배제, 차별과 배타의 역사를 경험하며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을 가져왔으며,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에서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한국 화교는 미국, 중국으로 재이주한 뒤에도 ‘한화(韓華)’라는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며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들의 정체성에는 황제(黃帝)의 자손으로서 중화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지금은 대만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국민당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

성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대만의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으며 대만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지만, 화교들에게 대만은 한 때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나갔던 자랑스러운 조국이었으며, 대만과 한국의 민주주의적 교육, 자본주의의 양식, 시민의식 등을 중국의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 비해 우월감과 차별성을 느끼게 해 주기도 했다(장수현 2010, 286-289; 이창호 2012a, 184).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적 성장에 따라 화교 사회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구화교 입장에서 신화교와 함께 ‘중국 교민’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 수도 있다. 신화교의 절반 이상이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출입국 및 취업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신화교의 다수가 전문 직업인보다는 단수노무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특수 상황도 구화교와 신화교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화교 정책을 통한 초국가적 민족주의의 확대 노력이 실제로는 각 지역의 화교 집단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에 따라 분절적이고 과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신화교 중심의 애국주의적 성향이 현지화된 구화교와 충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Barabantseva 2005), 중국 정부의 화교 정책도 구화교보다는 전문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신화교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Liu 2005, 303). 또한 한국 화교의 사례는 초국가적 이주가 ‘탈영토화된 민족국가(deterritorialized nation-state)’를 확대할 것인지, 혹은 국가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존의 국가 경계를 허물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초국가적 영역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화교는 그 경계에 위치하여 다수의 국가 체제들에 걸쳐 있으면서도 민족국가의 틀로 규정될 수 없는, 독립적인 하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Wickberg 2010). 그러므로 현지화된 화교의 재중국화(resinicization) 현상도 화교들이 이주 집단으로서 만들어내는 고유한 ‘중국인’의 종족성과 결합하고 충돌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김경학 (2012). “한국 화교의 초국가적 성격과 전망: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 pp. 191-226.
- 김기호 (2005). 『초국가 시대의 이주 정체성: 한국 화교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만 (2009).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 남건평 (1985). 『재한 화교의 사단 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도경 (2013). “화교로서 걸어온 길.” 『황해문화』. 제81호, pp. 195-208.
- 미야자키 마사히로 (2006).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 상술 화교 상술』. 시간과공간사.
- 박경태 (1999).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제48호, pp. 189-208.
- 박상순 (2001). 『재한중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만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1986). 『한국 화교의 종족성』.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 송승석·이정희 (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학고방.
- 안병일 (2015). “미시간의 사례를 통하여 본 한국 화교의 미국 이주와 정착, 그리고 ‘미국한화(美國韓華)’ 정체성.” 『한국문화인류학』. 제48권. 제3호, pp. 3-45.
-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 오시로 다이 (2014). 『장사를 하려면 화교상인처럼』. 타카스.
- 왕언메이 (2013).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방.
- 이원봉·임규섭 (2009).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 관계.” 『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pp. 153-182.
- 이정희 (2005).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대구사학』. 제80집, pp. 71-102.
- 이창호 (2008). “한국 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와 후 이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4권. 제1호, pp. 75-122.
- \_\_\_\_\_ (2011).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제33집, pp. 41-85.
- \_\_\_\_\_ (2012a). “한국 화교의 ‘귀환’ 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45권. 제3호, pp. 153-198.
- \_\_\_\_\_ (2012b). “이주민 2세대의 고향(home)의 의미와 초국적 정체성: 화교 동창

- 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5권. 제1호, pp. 3-41.
- 이춘호 (2014). “재한 중국 동포의 정치성의 정치.”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pp. 143-180.
- 이화승 (2006). “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고찰.” 『사립』. 제26집, pp. 263-284.
- 장수현 (2002). “한화,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제19호, pp. 245-258.
- \_\_\_\_\_ (2010).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치성: 중국 위해의 한국 화교에 대한 사례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1권. 제2호, pp. 263-297.
- 정성호 (2004). 『화교』. 살림.
- 정영록 (2002). “화교와 우리의 과제.” 『화교 네트워크와 우리의 기업활용방안』. 산업자원부 KOTRA, pp. 1-34.
- 정은주 (2013a). “디아스포라와 민족교육의 신화: 한국의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육 실천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6권. 제1호, pp. 135-191.
- \_\_\_\_\_ (2013b). “차이나타운 아닌 중국인 집거지: 근현대 동아시아 역학 속에 주조된 서울 화교 집단거주지.” 『서울학연구』. 제53권, pp. 129-175.
- 조세현 (2013). 『부산화교의 역사』. 산지니.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 New York: Verso.
- Barabantseva, Elena (2005). “Trans-nationalising Chineseness: Overseas Chinese Policies of the PRC’s Central Government.” *Asien*. Vol. 96, pp. 7-28.
- Chan, Brenda (2006). “Virtual Communities and Chinese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Chinese Overseas*. Vol. 2. No. 1, pp. 1-32.
- Feng, Chongyi (2011). “The Changing Political Identity of the ‘Overseas Chinese’ in Australian Politics.” *Cosmopolitan Civil Societ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 3. No. 1, pp. 121-138.
- Liu, Hong (2005). “New Migrants and the Revival of Overseas Chinese Nationalism”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4. No. 43, pp. 291-316.
- Nyíri, Pál (2002). “From Class Enemies to Patriots: Overseas Chinese and Emigration Policy and Discours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lobalizing Chinese Migration: Trends in Europe and Asia*. Farnham: Gower Publishing Ltd., pp. 208-241.
- Ong, Aihwa (2002). “The Pacific Shuttle: Family, Citizenship, and Capital Circuits.”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New Jersey: Wiley-Blackwell,

pp. 172–198.

- Ong, Aihwa and Donald Nonini (1997). *Ungrounded Empires: The Cultural Politics of Modern Chinese Transnationalism*. New York & London: Routledge.
- Rhee, Y. J. (2009). "Diversity within Chinese Diaspora: Old and New Huaqiao Residents in South Korea." J. Fernandez (ed.). *Diasporas: Critical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xford: Inter-Disciplinary Press, pp. 111–126.
- Thunø, Mette (2001). "Reaching Out and Incorporating Chinese Overseas: The Trans-territorial Scope of the PRC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China Quarterly*. Vol. 168, pp. 910–929.
- Wickberg, Edgar (2010). "Contemporary overseas Chinese ethnicity in the Pacific Region." *Chinese America: History & Perspectives-The Journal of the Chinese Historical Society of America*. San Francisco: Chinese Historical Society of America with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pp. 133–141.

## 2. 기타

허경인. “韓國華社‘族國認同’的心路歷程.” 『한화학보(韓華學報)』. 200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 2006년 4월.

『한화천지(韓華天地)』. 1999년 6월.

『한화통신(韓華通信)』. 2016년 1월 4일; 2016년 5월 2일.

『漢城華僑協會簡介』. 한성화교협회. 2002년 12월.

『KBS 월드리포트』. 2004년 3월 23일.

『蘋果日報』. 2010년 12월 16일.

漢城華僑協會. <http://www.craskhc.com>. (2016년 7월 30일 검색)

中國駐韓大使館. <http://www.chinaemb.or.kr>. (2016년 7월 30일 검색)

美國齊魯會館. <http://www.shandongsf.org>. (2016년 7월 3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6년 08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8월 25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9월 0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3 (2016)

**The Shifting Migrant Identity of Korean  
Huaqiao between China and Taiwan:  
A Case Study of Huaqiao Associations in Seoul**

**Kim, Kiho**

(Asian Studies Division, Yonsei University UIC)

This ethnographic research on Korean huaqiaos examines their shifting positions in dealing with China and Taiw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Until the 1980s, Korean huaqiaos had perceived Taiwan as their motherland, as they were affected by the ideology of anti-communism under the Taiwanese nationalist education system. Since 1992, however, Korean huaqiaos have sought for new economic opportunities by capitaliz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ir original hometown, Shandong Province in mainland China. At the same time, they have built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Embassy while keeping estranged from Taipei Mission in Korea sinc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held political power of Taiwan in 2000. Nevertheless, Korean huaqiaos seek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Chinese immigrants including ethnic Koreans from China (or ‘Chaoxianzu’), and have not developed a strong sense of attachment to their ancestral hometown of Shandong. Most Korean huaqiaos still maintain their Taiwanese citizenship, and have formed an independent identity as a migrant group by keeping a selective distance from either China or Taiwan. The case of Korean huaqiao demonstrates that China’s effort of expanding transnational nationalism is fragmented and negotiated by a migrant group’s

distinctive and strategic position, and that the process of resinicization can also be complicated by overseas Chinese' unique definition of ethnicity beyond national borders.

- Key words: Overseas Chinese, Chinese Embassy, Taiwan, Immigrant, Shandong Province